

# “표 줄게 돈 다오”

## 광주·전남 ‘선거 브로커’ 기승

18대 총선을 앞두고 예비후보들간 인지도 율리 경쟁이 치열하던 지난달 초, 광주의 A 후보 선거사무실에 비상이 걸렸다. 바로 어제가지만 해도 선거사무를 총괄 기획하던 팀장 한 명이 아무런 말도 없이 다른 유력 후보 선거사무실로 자리를 옮겨버린 것. 급히 사무실 컴퓨터를 점검해보니 후보 측에서 일급비밀로 관리해오던 파일들이 전부 사라진 것으로 확인됐다.

없어진 파일들에는 후보와 가까운 지역민 1만5천여 명의 명단과 사무실 운영비용·자금 사용 내역 등이 담겨있었다. A 후보 측에서는 수천만 원대의 검은 돈이 대가로 오갔을 것으로 추측했지만 불증이 없어 발만 구름 수밖에 없었다.

4·9총선이 눈 앞으로 다가오면서 광주·전남지역 선거판에 선거브로커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들 브로커는 선거를 도와주겠다고 하면 몇백만 원을 받고 모임을 주선하거나 각종 명단과 정보를 제공하며 선거관을 어지럽히고 있다. 특히 극히 일부인 것 하지만 대규모 조직을 갖춘 브로커들은 한 표에 몇백만 원의 처지를 악용, 조직동원 가능성을 흘리며 동시에 여러 후보와 접촉해 수천 만원씩을 챙기고 있어 불법선거와 과열경쟁을 부추기고 있는 실정이다.

선거브로커들은 과거 선거에 출마했던 경력이 있거나, 정당 활동 경력을 쌓아온 이들이 대부분으로, ‘모임을 주선해 주겠다. 특정 모임의 명단을 주겠다’며 접근하는 수법을 쓰고 있다. 이들은 1주일 단위로 적게는 30만원에서부터 많게는 100만원까지 돈을 받으며 후보들에게 각종 모임을 주선해주고 있으며, 일부는 후보와 함께 모임에 참여하

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각종 지능단체나 경쟁 후보와 친한 인사들의 연락처가 담긴 명단을 제공하고 수십만 원대의 돈을 받는 경우도 많으며, 미용실·찜질방·사우나 등지에서 특정 후보 지지발언을 하며 인지도를 높이는 ‘영세 브로커’도 상당하다는 것이 지역 정치권의 얘기다.

선거가 치러질 때마다 일정기간 동안 특정 후보와 일하다가 ‘후보의 비밀정보와 더 좋은 급여를 맞추는 조건’으로 같은 지역의 다른 경쟁후보 진영으로 옮겨가는 행태

### 돈 받고 모임 주선·명단제공 불법 부추겨 일부 후보, 당선 유예에 조직동원 요청도

를 반복하는 브로커도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선거캠프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기 어려운 여론조사를 대행해준다면 수천만 원씩의 비용을 챙기는 전문 브로커도 많지만 활동하고 있다는 것이 정설이다.

그러나 문제는 후보들이 브로커를 ‘필요악’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당선이 지상 최고의 목표인 선거판에서 경쟁 상대에 비해 조금이라도 더 빠리, 더 높은 지지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음먹어 겨자 먹는’식으로 브로커를 고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광주 C후보 선거사무실 관계자는 “선거판에서 ‘선거 브로커’의 존재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영향력 있는 일부 브로커는 후보 측에서도 무시를 못하는데, 후보들이 일부러 찾아가 조직 동원을 요청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홍행기자 redplane@kwangju.co.kr

# 친박 ‘무소속 연대’ 가시화되나

## 낙천 인사들 곳곳서 회동... 박 참여가 관건

한나라당의 공천 후유증이 본격적으로 불거지고 있다. 특히 공천을 받지 못한 친 박근혜 전 대표측 의원이나 원외 당협위원장들을 중심으로 ▲무소속 연대 ▲신당 창당 ▲제3의 정당의 연대, 합당 등 다양한 시나리오가 거론되고 있어 주목된다.

경기 이천·여주의 이규택 의원과 충남 아산의 이진구 의원 등 낙천한 친박 현역 의원들과 원외 당협위원장을 중심으로 이 같은 방안이 집중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규택 의원은 11일 “무소속 연대를 만들어서 함께 가느냐, 무소속 연대를 만든 뒤 창당준비위를 만들어 다른 당과 연합이나 합당할 것인지, 혹은 각자 갈 것이지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무소속 연대는 정당은 아니지만 출마자들간에 공동의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간사 등을 두는 느슨한 연합체의 형식을 띠 것으로 알려졌다.

신당 창당 방안은 후보등록일까지 시간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

다. 대신 기존의 군소 정당에 입당, 이름을 바꾸는 방안으로 창당에 준하는 정치세력화를 모색할 수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친박측 원외 일부에서는 정근모 전 명지대 총장이 대선 후보로 출마했던 참주인연합에 입당한 뒤 당명을 가칭 ‘미래한국당’으로 바꾸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모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서울 종강갑에 공천을 신청했다가 떨어진 김철기 전 당협위원장이 이남한나라당을 탈당한 뒤 참주인연합 입당 절차를 밟았다.

영남권을 중심으로 26~27명의 현역 의원 추가 ‘살생부’가 나돌고 있는 상황에서 남은 공천 결과가 공천 후유증 확산 여부의 최대 고비가 될 전망이다.

특히 박근혜 전 대표의 움직임이 ‘키’를 쥐고 있다. 이진구 의원은 “박 전 대표가 어떻게 할지 결정할 후에 모든 것이 이뤄지게 될 것”이라며 “아직까지 말만 무성할 상태로 안겅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 한, 호남 출신 수도권 공천신청자 운명은

## 심재철·김동성·이성현 등 생존 강성만·배종덕·장전형씨 등 탈락 67명 공천신청, 9명 공천 확정되

한나라당 공천이 막바지에 이르면서 호남 출신 수도권 신청자의 공천 여부가 관심을 끌고 있다.

11일 현재 호남 출신 수도권 공천 확정자는 심재철(광주·경기 안양 동안동) 의원, 허승(전도·경기 안산 단원동) 전 한나라당 정년위원회 부위원장, 김동성(순천·서울 성동)을 변호사, 정양석(보성·서울 강북갑) 전 한나라당 부대변인, 김영일(고흥·서울 은평갑) 전 MBC 보도국장, 이성현(영광·서울 서대문갑) 전 의원 등이다.

또 안형환(보성·서울 금천) 전 서울시의회 의장, 김철수(전북 김제·서울 관악) 대한병원협회장, 이원창(전북 전주·서울 송파) 전 의원 등 9명이 공천을 확정되었다. 호남 출신으로는 모두 67명이 공천을 신청. 이

중 9명이 공천을 받은 것이다.

또 서울 서초구에 공천을 신청한 김덕룡(전북 익산) 의원과 고승덕(광주) 변호사가 공천 경쟁을 하고 있는 중이다.

하지만, 배종덕(목포·서울 양천갑) (주)에스름 대표, 구해우(화순·서울 구로) 당 부대변인, 장전형(진도·서울 금천) 전 민주당 대변인, 이국현(전북 순창·경기 고양 덕양갑) 전 의원 등은 막바지 공천 경쟁에서 탈락했다.

특히 목포 출신의 강성만(서울 양천을) 당 부대변인은 이재오 의원 측근인 김용태(대전) 전 대통령직 인수위 전문위원과 경쟁을 벌인 결과, 공심위 투표에서 ‘5대6’으로 밀리면서 어렵게 공천을 놓쳤다.

이에 대해 한 호남 출신 탈락자들은 “이명박 정부 내에 호남 인사가 배제된데 이어 당에서도 호남 인사가 푸대접을 받고 있다”며 “공천 결과에서도 당 기여도가 높은 호남 인사가 공천에서 탈락해 한나라당의 호남 공력에 차질이 빚어지게 됐다”고 말했다.

/박지영기자 jkpark@kwangju.co.kr

## 4·9 총선 현장

### 박주선 ‘APEC 대학원’ 유치 공약 발표



○박주선 통합민주당 광주 동구 예비후보는 11일 국제화시대에 발맞춰 동구에 최고의 국제교육기관인 ‘APEC 대학원’ 유치를 추진하겠다는 내용의 공약을 발표.

박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오는 11일 페루에서 열리는 ‘2008APEC정상회의’에서, 21개국 회원국이 2천억원대의 예산을 분담하는 대학원 설립을 발의하고 한국 유치를 제안할 계획”이라고 설명.

### 강운태 ‘남구, 교육도시 인프라 구축’



○강운태 광주 남구 예비후보(무소속)는 11일 보도자료를 내고 “남구가 교육도시의 명성을 이어가며 평생교육의 산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주장.

강 후보는 또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된 남구가 전국 최고의 교육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은 물론, 양질의 프로그램이 제공될 수 있도록 상시체제를 구축하겠다”고 설명.

### 김동신, 목사 20여명과 ‘조찬 기도회’



○김동신 통합민주당 광주 북구 갑 예비후보는 11일 금수장 호텔에서 관내 목사 20여명과 함께 조찬기도회를 갖고 총선 승리를 기원.

김 후보는 중흥교회 김성원 목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기도회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과 같이 국민과 유권자를 믿고 신뢰하며 스스로를 낮추어 섬기겠다”고 다짐.

### 이용섭 ‘농촌 발전방안’ 의견 수렴



○이용섭 통합민주당 광주 광산구를 예비후보는 11일 광산구 월계동 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을 찾아 농촌지역 발전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

이 후보는 이날 “지역 특화산업을 중심으로 농촌을 배려한 정책과 정부 차원의 지원이 대폭적으로 이뤄져야 농촌이 외면받지 않는다”면서 “국회에 입성, 도·농간 균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지를 당부.

### 조영택 ‘교육격차 해소 정책 발굴할 터’



○조영택 통합민주당 광주 서구 갑 예비후보는 11일 광주시교육청을 방문, 안순일 교육감과 광주 교육 현안 및 저소득층 자녀 교육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

조 후보는 이날 “교육 양극화의 심화는 ‘가난 대물림’과 ‘사회적 지위와 부의 대물림’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면서 “국회에서 수도권과 지방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을 발굴하는데 힘을 쏟겠다”고 다짐.

### 김영진 ‘하계 U대회 광주 유치 앞장’



○김영진 통합민주당 광주 서구를 예비후보는 11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3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광주유치 범시민지원단 발대식’과 관련, 유치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이날 “광주의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 유치는 지역 경제 활성화 및 국제 도시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범시민지원단의 100만인 서명운동을 비롯해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 유치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

### 양형일 ‘반도체 조맹시험도시 지정 최선’



○양형일 의원(광주 동구)은 11일 “이명박 정부에서 광주지역 현안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표심잡기에 주력.

양 의원은 “이번 총선에서 당선,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을 비롯, 광주가 반도체 조맹시험도시로 지정되도록 하는 등 큰 역할을 하겠다”고 호소.

### 지병문 ‘고령화 사회 노인정책’ 특강



○지병문 의원(광주 남구)은 11일 남구노인복지관에서 ‘고령화 사회의 노인복지정책 방향’을 주제로 특강.

지 의원은 이날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라도 노인정책에 대한 체계적 준비가 필요하다”면서 “노후소득 보장 및 건강의료보장체계 구축, 노인친화적 사회기반 조

성을 위한 제도적 개선을 비롯해 노인 복지향상을 위한 국가적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역설.

### 김동철 ‘농협 조합원대회’ 참석 민심 수렴



○김동철 의원(광주 광산)은 11일 송정농협에서 열린 ‘농협 조합원 보답대회’에 참석, 지역민들과 대화의 시간을 갖고 민심을 수렴.

김 의원은 “우리 농업은 지금 한·미 FTA로 생산의 갈림길에 서 있다”면서 “농작물 판매와 생산 감소는 농민들의 소득 감소로 이어지고 이는 도시와 농촌간 양극화를 불러오는 만큼 도시와 농촌이 상생하는 모델을 만들는데 힘을 보태겠다”며 지지를 당부.

### 강기정, 세탁업 분화재단과 간담회



○강기정 의원(광주 북구갑)은 11일 세탁업 종중회 광주지역 분화재단과 간담회를 갖고 영세 자영업자 지원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

강 의원은 이날 “보존복지부가 세탁소 드라이클리닝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의 대기중 방출을 막기 위해 환풍기 설치 의무화했지만 상당수 세탁소가 영세하다보니 환풍기 설치를 부담스러워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설치는 필요한 만큼 세탁업계의 의견을 전달, 성능이나 안전기준 등 대책을 협의하겠다”는 의견을 피력.

### 임내현 ‘평생교육 성장 위해 온 힘’



○임내현 통합민주당 광주 북구를 예비후보는 11일 전남대 평생교육원을 방문, 의견을 청취.

임 후보는 이날 “지금까지 교육 투자 방식이 학교 교육에 치중됐다면 앞으로는 졸업이나 퇴직 뒤 경쟁력 강화를 통한 인적 자원 개발을 목표로 진행돼야 한다”면서 “특히 고령 사회에서는 꾸준하고 지속적인 능력 개발이 필요한 만큼 평생교육의 양적·질적 성장을 위해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 정기남 ‘보육교사 처우개선에 최선’



○정기남 통합민주당 광주 남구를 예비후보는 11일 관내 어린이집 두 곳을 방문, 시설을 둘러본 뒤 교사들의 의견을 청취.

정 후보는 이 자리에서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국공립·법인 시설과 민간·개인 및 가정 보육시설간의 양극화를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보육 담당 교사들의 처우개선과 보육시설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다짐.

### 이윤정, 타 후보 캠프 인제 영입 약속



○이윤정 통합민주당 광주 남구 예비후보는 공천 1차에서 통과 후, 현직 시·구위원을 포함 타 후보 캠프에서 활동했던 인재들이 속속 합류하는 등 ‘대세론’이 형성되고 있다고 주장.

이 후보는 “앞으로도 뛰어난 인재들이 지속적으로 영입될 것”이라며 “베스트 캠프를 꾸려 본선승리로 보답하겠다”고 강조했다.

### 김태욱, 동구 ‘문화환경지구’ 조성 논의



○김태욱 한나라당 광주 동구 예비후보는 11일 동구지역 주민들과 만나, 동구 전체를 살기 좋은 도시로 탈바꿈시킬 ‘문화환경지구 조성’ 리모델링 구상을 심도 있게 논의.

김 후보는 이 자리에서 “동구 일대를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연계한 문화환경지구로 조성하는 방안을 이명박 정부에 적극 건의하겠다”고 약속.

### 이병화 ‘웰빙테마파크 조성 적극 지원’



○이병화 통합민주당 광주 서구를 예비후보는 10일 아름다운 도시환경과 쾌적한 공민 환경 조성을 위한 ‘중앙공원 살리기 캠페인’에 참석, 지역민들과 함께 환경정화활동을 펼치며 지지를 호소.

이 후보는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서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앙저수지와 금당산, 광주천을 연계한 생태학습공원과 웰빙테마파크 조성사업’이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 김승남 ‘신성장 동력 발굴 일자리 창출’



○김승남 통합민주당 광주 광산구를 예비후보는 11일 신가동 주민자치위원회에 참석, 주민 자치위원 30여명의 의견을 수렴.

김 후보는 이 자리에서 “광주의 산업구조를 지식기반형 서비스산업 위주로 전환하고 신성장 동력을 발굴함으로써 관광은 일자

리를 많이 만들어나가겠다”고 주장.

### 김영룡 ‘중앙공원, 친환경 테마파크 조성’



○김영룡 통합민주당 광주 서구를 예비후보는 11일 지역 상가와 아파트 단지를 돌며 바다 민심 다지기에 열중.

김 후보는 이날 지역민과 만난 자리에서 “중앙동 중앙공원은 이용자가 많고 접근성도 좋은 도심속 휴식공간”이라며 “공민 일대를 친환경 테마파크로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약속.

### 오형근 ‘호남권 공생 위해 상생 전략 찾아’



○오형근 통합민주당 광주 북구 갑 예비후보는 11일 “호남경제권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선 광주·전남·전북 3개 지자체가 공동 발전할 수 있는 전략산업분야를 찾아야 한다”고 제안.

오 후보는 “생활권역이 같은 호남권의 공생을 위해선 상생의 전략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 같이 주장.

### 서정성 ‘광복천 복원, 주민 쉼터로 개발’



○서정성 통합민주당 광주 남구 예비후보는 11일 “남구 진월동 일대에 하천을 조성, 남구 지역민들의 쉼터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약.

서 후보는 “과거 개발논리에 사라졌던 진월동 일대 광복천을 친환경적 공법으로 복원, 푸른길 공원과 남구의 명소를 만드는 방안을 검토중”이라며 “햇볕 공약이 되지 않도록 면밀히 분석하고 지역민들의 여론을 수렴, 반영하겠다”고 약속.

### 유종필 ‘광주 U대회 유치, 국가가 나서야’



○유종필 통합민주당 광주 서구 갑 예비후보는 11일 2013년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의 광주 유치를 국가 사업으로 지정,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

유 후보는 또 “4·9총선으로 정치권도 유니버시아드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 않다”면서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를 광주에서 유치하는데 국가가 적극 나서 수 있도록 광주지역 예비후보들이 정부에 건의하자”고 제안.

### 민형배 ‘쇄신공천 기준 뭐냐’ 비판



○민형배 통합민주당 광주 광산구를 예비후보는 11일 공천심사위원회의 1차 압축 후보군과 관련, “국민이 눈높이”라는 공천 기준은 실증됐고 유권자와 지역을 철저히 소외시켰다”고 비판.

민 후보는 “광산구를 지역 1차 압축 후보에 정체성도 모호한데 지역민 지지도 낮고 선거때마다 출마했다가 끝나면 서울로 가버리는 정치철세가 포함됐다”고 성토.

### 정용화 ‘한, 비례대표 호남배려해 달라’



○정용화 한나라당 광주 서구갑 예비후보는 11일 많은 호남 출신인사를 비례대표 상위 순위에 배치해 줄 것을 중앙당에 건의.

정 후보는 “한나라당 당헌·당규에 ‘전략지역에 대한 비례대표 배려 원칙’이 명시돼 있는 만큼 호남지역의 경우 호남인사를 상위 순위에 다수 배치해 한나라당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무늬만 호남출신’이 아닌 지역의 대표성을 갖춘 인물을 선정해달라”고 촉구.

### 심재민 ‘대기업 콜센터 유치 일자리 창출’



○심재민 통합민주당 광주 광산구 갑 예비후보는 11일 “대기업 콜센터 유치 경험을 살려 일자리 창출을 힘쓰겠다”고 약속.

심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광주시 행정부시장 및 시장권한대행을 역임하면서 콜센터 유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쳐 지난 2003년부터 3년간 20개사의 콜센터를 유치, 2천500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면서 “전국에서 가장 높은 광주 지역 청년실업을 해소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

### 김경진, 김성이 장관 임명 강행 비난



○김경진 광주 북구갑(무소속) 예비후보는 11일 새 정부의 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후보자 임명 강행 방침과 관련,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난.

김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민의를 살피지 못하고, 여론 수렴도 하지 못하는 청와대에 안경과 보청기 선물이라도 해야겠다”고 일침.

/홍행기자 redplane@